

3

도덕적 심성

한국 유교는 인간의 도덕적 심성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활동 지도 제시된 도덕적 문제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한다.

생활 속 주제 열기

같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꾸준히 도덕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반성하고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꾸준히 도덕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반면,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사람은 쉽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중단원별 성취 기준 · 평가 기준

성취 기준	이항과 이이의 심성론 · 수양론을 비교하여 조선 성리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정약용의 심성론 · 수양론을 탐구하여 조선 성리학의 한계와 실학사상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상	이항과 이이의 심성론 · 수양론을 비교하여 조선 성리학의 특징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말할 수 있고, 정약용의 심성론 · 수양론을 탐구하여 조선 성리학의 한계와 실학사상의 의의를 근거와 사례를 들어 말할 수 있다.
중	이항과 이이의 심성론 · 수양론을 비교하여 조선 성리학의 특징을 말할 수 있고, 정약용의 심성론 · 수양론을 탐구하여 조선 성리학의 한계와 실학사상의 의의를 말할 수 있다.
하	이항과 이이의 심성론 · 수양론을 비교하여 조선 성리학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정약용의 심성론 · 수양론을 탐구하여 조선 성리학의 한계와 실학사상의 의의를 알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박하고 힘들 때도 도덕적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부도덕한 일을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유교 사상가들은 도덕적 마음을 타고난 인간이 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해 왔습니다. 조선의 유교 윤리 사상가들은 이러한 유학의 전통에서 더 나아가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인간의 마음과 도덕적 실천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조선의 유교 윤리 사상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고 도덕적 삶의 실현 방안에 대해 성찰해 봅니다.

우주 만물의 궁극적 이치를 연구하는 본체론(本體論)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성리학에 비해, 조선의 성리학은 사단 칠정(四端七情)을 중심으로 인간의 내면적 성정(性情)과 도덕적 가치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는 인성론(人性論)의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01 도덕 감정

학습 목표 • 도덕 감정에 대한 이항, 이이의 사상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I 사단 칠정(四端七情)

- 사단(四端):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구현할 수 있는 네 가지 단서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마음[是非之心]을 의미한다.
- 칠정(七情):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 전체를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망[欲]의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유교 윤리의 수용

삼국 시대에 유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유교의 도덕규범을 받아들였고, 유교의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원(元)나라를 통해 성리학을 수용하여 자연과 인간을 탐구하고 정치·사회적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건국된 조선에서 성리학은 5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은 도덕적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기 수양과 사회적 실천에 더욱 주목하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 탐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성리학은 사단 칠정(四端七情)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과 감정 및 도덕적 가치의 문제를 탐구하는 심성론(心性論)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항과 이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0

순수한 도덕 본성의 발현 - 이항의 사상

이항은 세계와 인간 심성에 대한 이기론적 해석을 기초로 도덕 본성의 실재 및 발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다. 이항은 주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理)와 기(氣)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주희는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理氣不相離] 동시에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理氣不相雜]고 하였다. 이항은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와 기가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입장에 주목하면서 ‘기’에 대한 ‘이’의 주재성을 강조하였다. 15



● 이항(李滉, 1501~1570)

이항이 이귀기천의 입장을 지녔음은 『퇴계선생속집』 제8권 잡저에서 “이(理)도 있고 기(氣)도 있으니, 이가 있게 되면 곧 기가 생기고, 기가 있으면 이가 따른다. 이는 기의 정수가 되고 기는 이의 줄개가 되어 마침내 천지의 공을 이룩하니……”라는 구절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무릇 이(理)는 기(氣)의 주재자이고, 기는 이의 재료이다. 이 두 가지는 본래 분별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사물에 있어서는 혼합되어 나눌 수가 없을 뿐이다. - 이항, 『퇴계집』 - 20

또한 이항은 가치론의 입장에서 ‘기’보다 ‘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이를 기보다 우위에 두는 이귀기천(理貴氣賤)의 입장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항은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감정인 사단은 ‘이’의 발현으로서 순선무악(純善無惡)하다. 반면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칠정은 ‘기’의 발현으로서 선악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악(惡)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25

핵심 정리

이항의 사상

- ① 이귀기천(理貴氣賤): 이를 기보다 우위에 두는 입장 → ‘기’에 대한 ‘이’의 주재성을 강조함
- ② 이기호발설: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라는 주장

도덕 감정인 사단은 이의 발현 → 순선무악

- 일반 감정인 칠정은 기의 발현 → 선악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음
- ③ 수양법: 도덕 본성의 실현과 관련한 수양의 태도로 일종의 도덕적 긴장 상태인 경(敬)을 강조함 → 주일무적(主一無適), 정제엄숙(整齊嚴肅), 상성성(常惺惺)을 제시함

제시된 이기호발설은 이황이 고봉 기대승과의 논쟁 후, 자신의 당초 의견을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최초에 이황은 “사단은 이치의 발현이고[四端理之發], 칠정은 기운의 발현이다[七情氣之發].”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기대승은 그러한 주장은 이와 기가 언제나 함께한다는 주희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여러 차례의 서신 교환 끝에 이황은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여 제시된 바의 이기호발설을 정립한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의 능동성을 강조하여 “사단은 이
기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氣發而理乘之].”라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정립하였다.

이황이 ‘이’의 능동성을 강조한 것은, 인간에게는 도덕 행위의 근거인 도덕 본성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그 발현도 당연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새싹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선한 도덕 본성인 ‘이’의 발현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상의 확립과 사회 질서의 수립은 도덕 본성의 능동적 실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황은 도덕 본성의 실현과 관련한 수양의 태도로 일종의 도덕적 긴장 상태를
가리키는 경(敬)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식을 집중시켜 마음
이 흐트러지지 않고[主一無適],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며
정제엄숙, 상성성
[整齊嚴肅], 항시 또렷이 깨어 있는 것[常惺惺] 등을 강조하였다. ‘경’을 통해 인간
의 욕망을 막고 삶의 원리와 우주 자연의 원리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만화 **특**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제시된 만화는 이황이 제시한 사단 칠정론을 간략하게 이해 가능하도록 말과 말 탄 사람에 비유한 것이다. 이황도 실제로 말과 말 탄 사람의 비유를 언급한 일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은 기대승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 실려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사람이 말을 타고 사람이 출입하는 것으로 이가 기를 타고 운행하는 것에 비유한 것은 참 좋은 비유입니다. 대체로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궤도를 잃게 되니, 사람과 말은 서로 소용되어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사람이 혹은 법범하게 가리키며 ‘간다.’고 말한다면 사람과 말이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사단·칠정을 혼합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사람이 간다.’고 한다면 굳이 말까지 아울러 말하지 않더라도 말이 가는 것은 그 가운데 있으니, 사단이 이것입니다. 혹은 이를 가리켜 ‘말이 간다.’고 한다면 굳이 사람이까지 아울러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가는 것은 그 가운데 있으니, 칠정이 이것입니다.”

교전 자료 읽기 ‘이’와 ‘기’에 관한 이황의 입장

- 칠정(七情)이 이(理)와 기(氣)를 겸하였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칠정을 사단(四端)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기와 칠정의 관계는 이와 사단의 관계와 같습니다. 따라서 발현하는 것에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에는 모두 가리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주가 되는 것에 따라 나누어 이와 기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 이황, 『퇴계집』 —
- 천하에 이(理) 없는 기(氣)는 없고 기(氣) 없는 이(理)는 없습니다.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입니다. 기가 따르지 않는 이는 나올 수가 없고, 이가 타지 않는 기는 곧 이욕(利慾)에 빠져서 금수(禽獸)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바뀔 수 없는 확고한 이치입니다. — 이황, 『퇴계집』 —

분석 해설 이황이 사단과 칠정이 발할 때 그 혈맥이 각각 다르다고 말한 것은, 사단과 칠정의 발하는 원천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즉 사단은 이에서,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황은 이와 기가 항상 함께한다는 주희의 학설을 따르면서도 사단은 이가 발한 순수한 선으로서 운동성과 자발성도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칠정은 이러한 ‘이’가 주재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여 ‘이’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황은 이(理)를 강화하는 쪽으로 주자학을 전개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이황이 마주했던 당시 조선의 사회적 혼란상을 주자학 이론을 재구성함으로써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황에게 당시 조선 사회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중앙의 권력자들은 악행의 대표자로 보였고, 이황은 그런 권력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심성론을 재구성하려고 했습니다. …… 현대 중국의 천라이 같은 주자학 전공자는 이황의 주자학이 중국 주자학의 본류와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자학을 당시 조선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려고 한 이황의 시도를 독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전호근, 『한국 철학사』 —

● 영상 자료 소개

EBS 한국기행, 「안동고택」 2부

→ 퇴계 이황의 생가와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 그의 삶을 되새겨 본다.

이황이 이기호발설을 주장하며 이의 발현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이이는 기발이승일도설을 주장하면서 발하는 것은 언제나 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 때문에 이이의 입장에서 기를 조절하는 것, 즉 일반 감정의 조절이 도덕적 실천을 위한 관건이 된다.

일반 감정의 조절과 기질의 변화 - 이이의 사상



이이(李珥, 1536~1584)

이황과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이이도 인간의 도덕 본성과 도덕 실천 방안을 탐구하였다. 그는 도덕 실천과 관련하여 일반 감정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이황과 구분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이는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理氣不相離]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제시하였다. 이기지묘는 이와 기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묘합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발(發)하는 것은 기(氣)요, 발하는 까닭은 이(理)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만화 특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



발할 까닭이 없다.”라는 그의 주장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그는 ‘이’는 모든 사물의 원리이자 도덕 본성의 근거로서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실재하는[理通] 반면, ‘기’는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운동 변화하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국한된다[氣局]는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하였다. 이이는 이통기국을 바탕으로 선의 원리인 ‘이’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기’는 국한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자신의 이기론적 입장에 따라 사단 칠정에 대하여 이황과는 구분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 사단과 칠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임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을 가리킨다. 또한 사단을 포함한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氣發理乘]’이다. 그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이며, ‘이’는 기가 발하는 근거라고 보았던 것이다.

칠정포사단(七情包四端) 또는 칠정겸사단(七情兼四端)으로 지칭되는 이론이다.

인문 자료 읽기 이와 기에 관한 이이의 입장

이(理)는 모든 사물의 원리이고 기(氣)는 그 원리를 담는 그릇이다. 비유한다면 이는 이상이고 기는 이상을 담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나 할 때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이는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모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이 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했다. 또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그 속에 담긴 공기는 같다고도 했다. …… 그런데 현실은 항상 변한다. 조금 전까지 따뜻했던 물이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상이란 그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면 이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이이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바꾸려는 이이의 실천 의식이 나오는 것이다.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 철학 스케치 1』

제시된 만화는 이이가 제시한 사단 칠정론을 간략하게 이해 가능하도록 말과 말 탄 사람에 비유한 것이다. 이이도 실제로 말과 말 탄 사람의 비유를 언급한 일이 있는데 그 중 잘 알려진 것은 성호원에게 보낸 편지 중 인식과 도심을 논하는 다음의 구절이다. “사람이 말을 탄 것에 비유하면, 사람은 성(性)이고 말은 기질이니, 말의 성질이 양순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은 기품의 청탁수박(淸濁水帑)의 다름과 같습니다. 문을 나설 때에 혹은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람이 말이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은 사람이 주가 되니 곧 도심(道心)이요, 사람이 말이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나가는 것은 말이 주가 되니 곧 인심(人心)입니다.”

- ① 이기(理氣)의 이(理)와 기(氣)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묘합의 관계
- ② 이통기국(理通氣局): 이는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반면, 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국한된다는 입장
- ③ 기발이승일도설: 사단을 포함한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 → 이라는 원리에 근거한 기의 발동만을 인정함

- ④ 교기질(矯氣質)의 수양론: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를 실현할 수 있음
 - 극기(克己): 사사로운 욕망의 극복 → 기가 맑고 깨끗해져 이의 본래 모습인 선한 도덕 본성이 드러남
 - 사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경(敬)의 실천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성(誠)에 이를 것을 제시함
- ⑤ 실질에 힘써야 한다는 무실(務實)과 시대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개혁론인 경장(更張)을 주장함

이이는 이처럼 ‘이’라는 원리에 근거한 ‘기’의 발동만을 인정함으로써, 칠정이라는 인간의 일반 감정이 도덕 본성에 근거함을 주장하였다. 또 악(惡)의 발생과 같은 도덕적 불완전함의 원인을 기의 영역에 한정 짓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선의 실현은 기에 의해 좌우되는 일반 감정의 조절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보았다.

5 그래서 이이는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교기질(矯氣質)의 수양론을 제시하였다. 이이에 따르면 기질을 바로잡는 일의 핵심은 극기(克己)에 있다. 극기는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기가 맑고 깨끗해져서 ‘이’의 본래 모습, 즉 선한 도덕 본성이 드러난다.

또한 이이는 경(敬)의 실천을 통해 사사로움과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하늘의 10 진실한 ‘이(理)’이자 마음의 본체인 성(誠)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의 자세를 몸가짐을 삼가 바르게 수렴하는 것, 말을 삼가 바르게 수렴하는 것, 마음을 삼가 바르게 수렴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였다.

한편, 이이는 민본과 위민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실질에 힘써야 한 15 다는 무실과 시대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개혁론인 경장을 주장하였다. 당시를 위기로 규정한 그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점진적인 개혁을 도모하였으며,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개혁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도덕과 더불어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훗날 실학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질문

Q 이황과 이이는 성(性), 즉 주자가 말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A 이황과 이이의 사단 칠정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황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구분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이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실(務實)

실질적인 것에 힘쓴다는 의미로 이이는 도덕적 차원의 성실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경장(更張)

본래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의 줄을 갈아 끼운다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정치적·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구와 성찰

바람직한 삶의 자세

활동 지도 이황과 이이가 강조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한국 윤리 사상 이해하기

- 다음 글을 읽고 이황과 이이가 강조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마음의 이치는 매우 방대하여 본떠서 잡을 수 없으며, 매우 넓어서 끝을 볼 수 없으니, 만약 경(敬)을 첫째로 삼지 않으면, 어찌 능히 그 성(性)을 보존하고 그 본체를 세우겠는가. 이 마음의 발하는 것이 미묘하여 가는 털끝을 살피기보다 어렵고, 위태하여 구덩이를 밟기보다 어려울 것이니, 진실로 경을 첫째로 삼지 않으면 또 어찌 그 기미를 바르게 하고, 그 쓰임에 통달할 수 있겠는가. - 이황, 『퇴계집』 -
- 기질이 치우치고 막혀 있는 사물은 더욱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맑고 흐리며, 순수하고 뒤섞인 기질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텅 비고 밝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이이, 『성학집요』 -

이황과 이이 모두 도덕 본성을 실현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다만 이황은 경을 통해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이이는 성과 경을 통해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는 차이가 있다.

^^로 확인

- ①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모두 정(情)이지만 연원이 다르다고 보았다. (O, X)
- ② 이이는 사단 가운데 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칠정이라고 보았다. (O, X)
- ③ 이황과 이이는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O, X)

● 이이가 바라본 인심과 도심

이이에 따르면 인심과 도심은 두 개의 각각 다른 마음이 아니라 동일한 심(心)의 두 가지 상태를 구분하지 않을 수 없어 편의상 붙인 이름입니다. 그 때문에 이이는 인심 또한 처음에는 선하지 않음이 없다고 파악합니다. 인심에서 악이 발생하는 것은 인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의 부조화, 곧 과불급이라는 과정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 전호근, 『한국 철학사』 -